

[기고] 제주 첫 통수식...지하수 보전·저수지 역할 확대 기대

한국농어민신문 | 승인 2024.04.30 17:04 | 호수 3580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김동철 본부장)는 4월 24일 무릉저수지(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에서 본격적인 영농급수를 위한 첫 물길을 여는 통수식을 제주도에서는 최초로 개최했다.

통수식이란 용어는 주로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육지에서는 대부분의 농업용수를 저수지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한해의 논농사를 시작하는 4월경에 첫 물꼬를 트는 통수식은 1923년 경기도 김포의 신곡양배수장에서 개최한 금파통수식 이래 전국의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사 직원 등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원활한 통수를 축하하고 풍년농사를 염원하는 뜻깊은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김동철 제주지역본부장

제주도는 농가인구, 농업생산액, 농가소득 등 1차 산업인 농업 관련지표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때문에 가뭄 발생 시 그 피해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공사는 관정,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통해 농지에 풍부하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공사는 1970년 제주시 한림읍 동명 1호공 지하수 개발에 성공하여 당시 대부분이 천수전(天水田)이던 제주 농업용수 공급기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다양한 작물과 시설재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최근까지 약 1,400여공의 공공관정을 개발하여 제주도 전체 수자원의 84%, 농업용수의 93%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뭄과 시설재배 확대에 의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로 제주지역 지속사용가능 지하수량의 81.9%가 이미 개발(허가)됨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을 위한 용천수, 하천수, 빗물 등 대체수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지표수와 용천수를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125만톤 규모의 성읍저수지, 85만톤 규모의 송당저수지 등 10개 저수지를 조성하여 약 4,863ha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수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수식 행사를 개최하는 무릉저수지는 정부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작년말에 완공하였는데, 총저수량 30만톤 규모로 매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정읍지역 2,164ha의 농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을 마련했다.

물건을 헐뜯게 쓸 때 “물 쓰듯 쓴다”라는 옛말이 있다. 옛말치고 틀린 말이 없다지만 “물 쓰듯 쓴다”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연평균강수량 1,252mm 중의 28.9%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버려지고 있어 만년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계절마다 또 지역적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분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대체수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우리 모두가 물 절약을 더욱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